

## 2001년도 정기총회 및 시책설명회 개최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지난 2월 14일 섬유센터 17층 중회의실에서 회원사 임직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진흥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2000년도 수지결산(안), 200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정관 일부 개정(안), 비상근 임원 선임 및 해임(안) 등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 처리하였다.

아울러, 진흥회에서는 정기총회에 이어 그 동안 외환위기 어려움을 성실히 극복하고, 재도약을 위

해 성실히 노력하고 있는 전기업계 경영방향 제시 및 사업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2001년도 전기산업시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명회는 “21세기 대외환경 변화와 중전기산업 대응방향”에 대하여 산업자원부 반도체전기과에서, “전력산업구조개편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 구조개혁팀에서 각 발표내용에 대하여 설명 및 토의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문의 : 기술진흥팀)

## 제6대 회장에 현대중공업(주) 조충휘 사장 취임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2월 14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사임을 표명한 유재환 회장의 후임으로 현대중공업(주) 대표이사 조충휘 사장을 진흥회 제6대 회장으로 선임하였다. 앞으로 국내 중전기 산업계를 이끌어 나갈 신임 조충휘 회장은 1976년 현대중공업(주)에 입사하여 런던지사장, 조선사업본부장을 거쳐 지난 1999년부터 현대중공업(주) 대표이사로 재직중에 있다.

이날 총회에서 신임 조충휘 회장은 취임인사를 통해 “국내 경기현실이 전반적으로 주춤한 상황으로 중소기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국가기간산업에 종사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국내시장에 안주하려는 나태함을 버리고 우선 전기업계 모

두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마인드로 여러 분야에 걸쳐 회원사간의 상호협력체제를 조성하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서 세계시장을 겨냥하여 나갈 것을 당부하고 이를 위하여 앞으로 진흥회가 회원사와 함께 전기산업의 2천년대 선도산업화에 선봉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진흥회에 대하여 회원사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며 취임인사를 하였다.

한편 진흥회에서는 총회에서 IMF 경제위기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기업계의 권익을 위하여 지대한 공헌을 한 유재환 전임회장에게 회원사 명의로 공로패를 전달하고 또한 진흥회 명예회장으로 추대하여 앞으로도 전기업계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하였다.(문의 : 기획관리팀)

## 『전력산업발전위원회』 발족, 활동개시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중전 산업계의 능동적 대처, 향후 한전에서 분리된 회사와 호혜적인 관계정립 및 이들 회사와의 구매·기술개발등과 관련된 불공정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전력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2월 23일(금) 진흥회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 운영방안 및 【대한전 중전기기 애로센터】 현판식 등을 거행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회 구성은 전기진흥회·전기조합·전선조합등 관련단체 및 전

기연구원·품목별 업계 추천 18인이며, 위원장은 본회 공창덕 상근부회장이 맡기로 하였다.

동 위원회는 중전업계 건의를 수시로 접수하여 분기별로 심의기로 하였으며, 전문분야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기로 하였다. 앞으로 한전의 개발·검수·시험제도, 물품대금등 불합리한 제도 등을 개선하는데 주력하고, 정부 및 한전 주요인사들을 초청하여 정보교류회도 가질 예정이다.(문의·기술진흥팀)

## “한국전기산업진흥회”로 명칭 변경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설립근거법인 “공업발전법”이 폐지되고 “산업발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본회 명칭도 이에 의거 2월 26일부터 『한국전기산업진흥회』로 변경하였다.

외형적으로는 “공업”에서 “산업”으로의 단순한 어구변경으로 비취 지지만 국내외적으로 그 명칭의 사용에 있어서 “전기공업”이 회전기기, 정지기기, 전선 및 기타 전기기기와 관련부품 및 소재공업을 포함하는 협의의 의미를 담고 있다면, “전기산업”

은 기존의 전기공업은 물론 디지털개념과 S/W개념 등이 접목된다. 전후방 관련산업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과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흥회에서는 향후 급속도로 발전하는 선진기술 변화 및 폭넓은 산업환경 변화에 우리 전기업체가 효율적으로 발 맞추어 나아가는 계기가 되리라 보고 진흥회의 추진사업 및 업무분야에 이러한 확장된 개념을 적극 반영하기로 하였다.(문의: 기획관리팀)